



정오표 (Errata)

1.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40권 제6호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Vol. 40, No. 6, December 2024, pp.704-732
https://doi.org/10.5572/KOSAE.2024.40.6.704
p-ISSN 1598-7132, e-ISSN 2383-5346

대기질 및 온실가스 측정망 운영 현황: 각국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

Current Status of Air Quality and Greenhouse Gas Monitoring Networks: Case Studies from Various Countries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정창훈*, 김용표¹⁾

경인여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¹⁾이화여자대학교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

Chang Hoon Jung*, Yong Pyo Kim¹⁾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on and Administration, Kyungin Women's University, Incheon, Republic of Korea

¹⁾Research Center for Strategic Solutions for Environmental Blindspots in the Interest of Societ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변경 전

p. 721, Fig. 4

Fig. 4. Greenhouse gas monitoring station for climate change surveillance.

p. 721

현재 우리나라 배경지역에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1개소와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4개소에서 기후변화 감시 목적으로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환경연구소 4개소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측정하고 있으며(NIER, 2023, 2022b), 서울시 등의 지방정부, 산림청, 농진청 등의 기관에서도 각각 산림과 농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변경 후

Fig. 4. Monitoring stations for climate change surveillance.

현재 우리나라 배경지역에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1개소와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4개 지구대기 감시소 중 3개소(고산, 안면도, 울릉도·독도)에서 기후변화 감시 목적으로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환경연구소(4개소) 등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측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 산림청, 농진청 등의 기관에서도 각각 산림과 농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있다(NIER, 2022b).